

53장 종의 넷째 노래

1. 종의 고난과 오해 (53:1-3)

- 1 우리의 메시지를¹⁾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2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순처럼,
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랐다.
그에게는 외모도 없고 고귀함도 없어서
우리가 볼 만하지 않았고
외양도 없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하지도 않았다.
-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였고
고난의 사람이고 병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돌려 버릴 자처럼 멸시를 하니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1) 우리의 탄식과 여호와와 팔

종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언자는 탄식을 한다. 열국의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에게서 이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탄식으로 본론을 시작한다. 수고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도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자의 소망은 여호와와 팔에 있다.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눈을 여시면 사람이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하는 이 말은 여호와와 종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다. 출애굽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이신 여호와와 전능하신 능력이 여호와와 종에게서 나타났다는 뜻이다. 즉,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불신을 호소하면서 예언자는 이야기의 초점을 여호와와 종에게로 맞춘다. 사실 사람의 불신을 아무리 분석한들 소용이 없다. 그보다는 여호와와 종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2) 연한 순

여호와와 종은 사람 이하로 여겨질 만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고운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에게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서 고운 모양과 풍채가 있는 큰 나무는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단 4:10-12 등). 반면에 여기서 여호와와 종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연한 순과 마른 땅의 줄기/뿌리로 표현한다.²⁾ 마른 땅에 심긴 나무가 아름답기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썩’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는 소망이 있다. 그는 마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썩이 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사 11:1). 다윗의 이름 대신에 이새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 줄기의 미약함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는 또한 이새의 뿌리다(사 11:11). 사람의 생각과 달리 쉽게 꺾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가 “주 앞에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다.

1)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파한 것도 될 수 있고 52:13-15에서 우리가 들은 내용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결정된다.

2) 연한 순과 뿌리는 단수로 표현하여 여호와와 종을 분명히 지칭하였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라는 이유로 그분을 거부하였다(요 7:41-42). 당대에 이스라엘의 제도권에 있던 자들은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일했다. 그러나 바벨론과 비교할 만한 제국이던 로마는 멸망한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자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는 지금도 힘 있게 전진한다.

3) 슬픔의 사람

여호와와 종은 간고(몹시 고생스러움)와 질고를 아는 분이다. 여기에서 ‘알았다’는 것은 여호와와 종이 직접 각종 질병과 고생을 빠짐없이 다 겪으셨다는 뜻은 아니다.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신 분이 다른 사람의 병도 친숙히 알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 주셨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도, 열두 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그들의 내면을 보시면서 치료해 주셨다.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손을 댄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경우라도 주님은 그들을 멀리 두고서 격리시킨 채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어 만지면서 고쳐 주기도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와 종’ 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지니는 성격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외면하였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멸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적으로 힘과 권력이 없어 보인다고 외면하였다. 얼굴이 사람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상한 자를 외면하듯 외면하였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

2. 여호와와 종의 대속의 죽음 (53:4-6)

- 4 그런데 실제로 그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고
우리의 고난을 짊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과 침을 받고
곤경 중에 있다고 여겼다.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반역죄 때문이고
그가 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³⁾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헤매며 각기 자기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1) 홀로 고난을 당하심

여호와와 종이 고난과 슬픔을 짊어지심은(3절)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도 종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6절). 질고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죄다. 그런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 종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2) 대속의 고난을 당하심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역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목자를 떠난 양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목자를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로 가고 그 안에서 나 자신도

3) 직역하면 ‘우리 평화의 징계가 그에게 있다.’ 여기에서 연계형은 ‘결과’를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의미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호와와 종은 그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셨다.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면 그 짐승이 죄를 대신 가져가는 것처럼, 여호와와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가져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고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짐이 없다.

그의 찢림(시 22:16; 요 19:34)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죄를 찾으셨다.

3)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당하심

여호와와 종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법을 어긴 결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신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온전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슬픔도, 몸의 질병도 다 품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마 8:17).

3. 여호와와 자발적인 죽음과 장사되심 (53:7-9)

7 압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였으나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8 폭력적인 재판⁴⁾을 받고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생각하였겠는가?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내 백성의 반역죄 때문에 그가 침을 당하였다.
9 그 무덤을 악한 자들과 함께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는 죽을 때에 부자와 함께하였다.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1) 죽음으로 나아가심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을 때에 여호와와 종은 자원하여 그 짐을 즐거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잠잠히 그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분은 종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상태에 계시면서 잠잠히 계셨는데, 7절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이 표현이 두 번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양의 모습이 대비된다. 우리는 다 양처럼 자기의 길을 갔지만, 여호와와 종은 어린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을 마음에 두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으로 대항하려던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마 26:54)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셨다. 해롯에게 넘겨졌

4) ‘폭력과 재판으로부터’에서 ‘폭력과 재판’은 중언법(hendiadys)으로 이해하여 ‘폭력적인 재판’으로 옮겼다. ‘민’은 ‘도구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후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건의 서술로 보면 ‘후에’로 옮길 수 있으나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 ‘부당한 재판을 받고서’라는 의미가 있기에 ‘도구적 의미’로 옮겼다.

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잠잠하셨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는 모두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었다. 어떤 불의한 일이 닥치든 마치 그것을 당하기로 준비된 사람처럼 받아들이셨는데, 이는 마음에 종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십자가의 큰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게 하시기를 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면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2) 여호와와 종의 죽음: 그 시대 사람들의 무지

여호와와 종의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죽음으로 끌려가셨지만, 그분의 죽음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그들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실조차 그들은 몰랐다. 하물며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와 종을 연상할 여지는 하나도 없었다.

가야바나 빌라도의 재판정을 공정한 재판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판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죄를 물으신 것이다. 그는 재판정에서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불순종한 백성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종이 짊어지시고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을 때에, 무지한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하고 수군댔다.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후에는 십자가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이다.

3) 죄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입에 쉼사도 없고 강포도 없으신 분이 죄인과 함께 달렸으나 결국에는 부자와 함께 묻히셨다. 여호와와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또한 그렇게 죽은 종이 결국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부자와 함께 묻힌다는 것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일종의 반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사야의 이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본다. 죄인의 죄수로 여김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죽으신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함께 묻히고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국 죄인과 함께 묻히지 않고 홀로 부자의 묘실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 죽으신 직후부터 그분은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고난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분은 이제 영광으로 인도되기 시작하였다. 구약의 예언만을 놓고서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루어진 사실을 놓고 볼 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은 일은 일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빌라도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결국 예수님을 부자의 무덤에 묻히도록 하셨다.

4. 승리한 종: 죄를 짊어짐으로써 높아지심 (53:10-12)

10 여호와께서 그를 병으로 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 씨를 볼 것이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여호와와 기뻐하심이 그의 손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11 그 영혼의 고통 후에 그는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⁵⁾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5) 직역하면 “나의 종, 의로운 자”다.

그들의 죄악을 그가 짊어질 것이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로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죽는 데까지 버리고
 반역자들의 하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반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여호와와 종의 여호와와 원하시던 뜻을 성취하셨음을 증언하는 목소리다(10절).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종의 사역을 확정해 주시는 목소리다. 여호와께서 그 종의 사역을 확정해 주시면 그 종은 죽음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1)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 (53:10)

앞서 4-5절에서는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와 종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생애 기간 내내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특히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다.

여호와와 종의 상함을 받으시는 것이 여호와와 원하는 것, 여호와와 뜻이었다.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가셨다. 억지로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리셨다. 고난 앞에서 잠잠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종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치셨다. 구약에서 속건 제물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호와와 종의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다. 제사에서 영혼/생명은 중요한 것이다. 레위기 17:11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스도는 흠이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그냥 동물로 제사를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그 실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애신 것이다(히 9:26).

2) 여호와와 확정 (53:11-12)

여호와와 종은 자기 목숨을 다 드려서 순종한 결과로 긴 날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다(행 2:24).

여호와와 종에게는 지식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성공하게 되었다(52:12).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으나(사 5:13) 이제 여호와와 종의 그 지식으로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지식은 고난에 대한 것이지만, 그분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사 50:4-6).

그 종은 또한 의로운 분이셨고, 의롭게 모든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충분히 나타내셨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그의 백성에게 입혀 주신다. 그분의 지식으로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의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사 51:1, 5) 이방 사람까지도 구원하여 많은 백성을 이루신다(참조 49:5-6).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이 신실하게 봉사하여 얻은 분깃을 많은 사람과 또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다. 여기에서 ‘함께’ 라는 뜻의 히브리어 전치사는 ‘……를’ 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과 강한 자들을 분깃으로 주신다는 의미도 된다. 죄인이었던 많은 사람을 강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의 분깃으로 삼으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 곧 주님의 분깃이 되는 것이다(사 40:10-11).

5. 죄를 담당하고 기도하심

여호와의 종이 의롭게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침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그분의 기도로 끝난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여호와의 종은 계속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완성도 오직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이러한 구절에서 알 수 있다.

6.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은 서로 연결된다. 42:1-6에서는 그 종의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였고 49:2-4, 7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감추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50:6에서도 고난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52:13-52:12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통하여 높이 들리고 존귀하게 됨을 가르친다. 이 점에서 여호와의 종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더 명확히 계시되며, 그분의 구속 사역과 함께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 종의 노래에 나오는 ‘우리’ 는 각기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죄임을 인정하고(53:6) 여호와의 종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도 자기의 뜻대로 살면 양처럼 길을 잃은 자들이지만(벧전 2:24)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호와의 종의 온전한 순종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기도에 의지하는 자가 바로 ‘우리’ 고 그분의 분깃인 ‘많은 사람’ 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위한 대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 으로 회복되는 데에서 완성된다.

53장 익힘 문제

1. 여호와의 종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2. 빈 곳을 채우십시오.
“ 그는 실로 우리의 □□를 지고 우리의 □□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 □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4-6)
3. 여호와의 종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떻게 하시면서 즐거이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까? (7절)
4.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을 어떤 제물로 드릴 것입니까? (10절)
5. 여호와의 의로운 종은 무엇으로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할 것입니까? (11절)